

정보 무늬(QR코드) 이용 시, 음성으로 보도자료를
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안드로이드



아이폰



보도시점: 2025. 12. 2.(화) 08:30 배포: 2025. 12. 2.(화) 08:30

국민 10명 중 8명 “은둔형 외톨이” 문제 심각”… 모든 연령대로 지원 확대해야

- 국민권익위, '은둔형 외톨이' 관련 3,216명 대상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
- 선제적 지원, 가족 지원, 전 연령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국민 대다수 공감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‘국민생각함’*을 통해 3,216명의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, 현재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86.7%가 ‘매우 심각’하거나 ‘심각’하다고 답했다.

*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(<https://www.epeople.go.kr/idea>)

이는 은둔·고립 문제가 특정 개인이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□ 그렇지만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, 중장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85.9%의 국민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. 이러한 결과에서 은둔은 모든 세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드러났다.

□ 혼자 있고 싶어질 때는 ‘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’가 첫 번째(26.8%)로 꼽혔다. 또한,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은둔을 시작하게 하는지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‘대인관계의 어려움’이 ‘심리적·정신적 어려움’(32.4%)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

응답(28.6%)을 차지하기도 했다.

- 한편 응답자의 85.5%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나 지방정부가 위기 징후를 먼저 파악한 후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.
- 또한 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성에도 응답자의 86.7%가 공감해, 은둔형 외톨이 지원 체계를 가족 및 생활권 단위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확인되었다.
-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는 ▲은퇴 후 은둔형 외톨이가 된 사람에 대한 관심, ▲고립 초기 위기 신호 인지, ▲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, ▲사회적 편견 및 낙인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이 모였다.
-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“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3,200명이 넘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도개선안에 충실히 담아,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민생현안제도개선전담팀	책임자	팀 장	윤효석 (044-200-7209)
		담당자	조사관	이정원 (044-200-7108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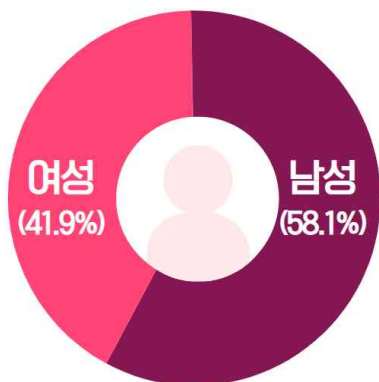
#국민권익위 #제도개선 #은둔형외톨이 #국민생각함 #국민의견수렴
#고립 #은둔 #은퇴 #가족 #편견

□ **의견수렴 개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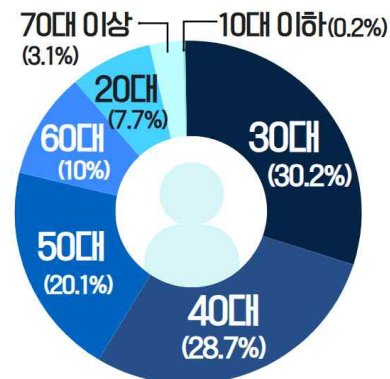
- ◆ 설문제목 : “내 방이 세상의 전부입니다”...
우리 곁 보이지 않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시겠어요?
- ◆ 설문기간 : '25.9.24.~11.16.
*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된 기간(9.25.~10.28.) 제외
- ◆ 설문방식 : 구조화된 객관식 설문과 주관식 자유 답변 병행
- ◆ 설문내용 : 은둔·고립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공감대 등 **9개 문항**
- ◆ 설문참여 : **총 3,216명(일반국민 1,345명, 국민패널* 1,871명)**
*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,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 모집단으로 국민패널은 설문 초반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응답하는 점을 고려,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 전 참여 응답으로 결과 분석
- ◆ 향후계획 :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안 마련

□ **응답자 기본정보(전체)**

- 응답자 성별은 남성(58.1%)이 여성(41.9%)보다 많고, 연령대는 30대(30.2%), 40대(28.7%), 50대(20.1%), 60대(10%), 20대(7.7%) 등의 순



< 응답자 성별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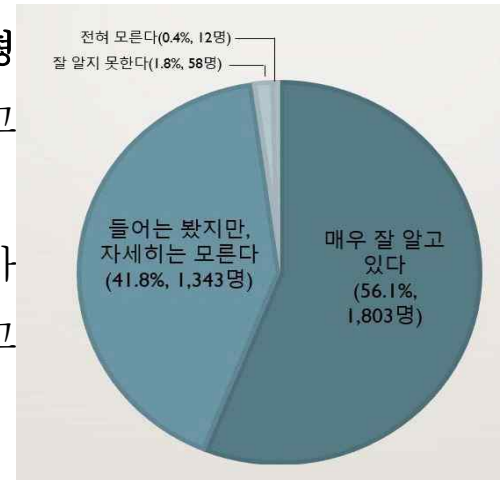


< 응답자 연령별 현황 >

□ 설문 응답결과[객관식 및 주관식 병행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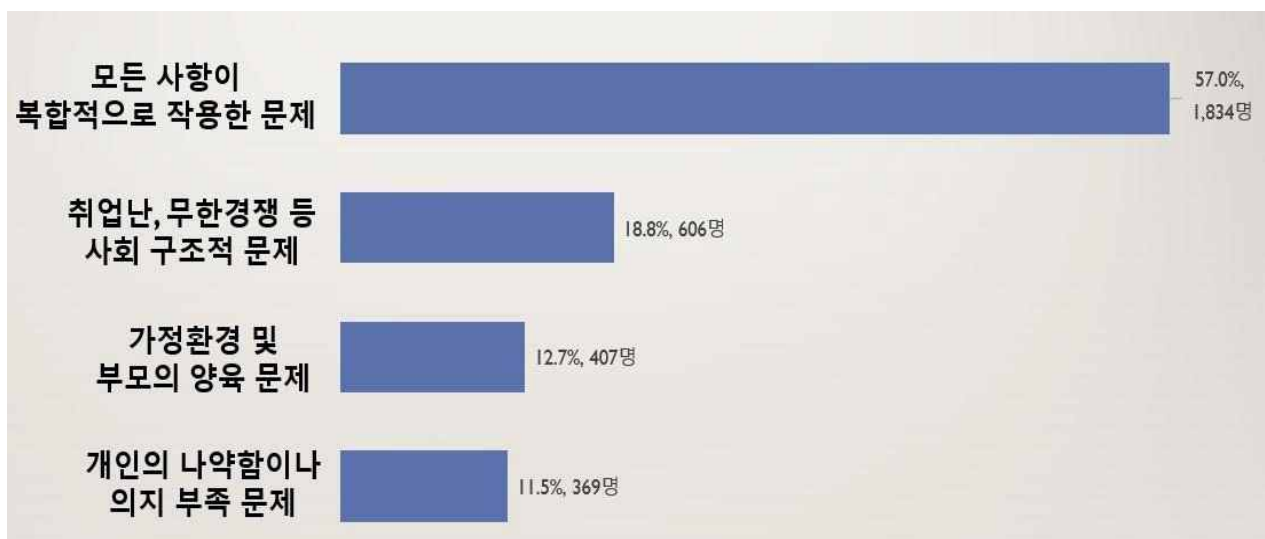
1) '은둔형 외톨이' 문제에 대한 인식

- 과반수 응답자(56.1%, 1,803명)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'매우 잘 알고 있다'고 답변,
- 다음으로 응답자의 41.8%(1,343명)가 '들어는 봤지만 자세히는 모른다'라고 답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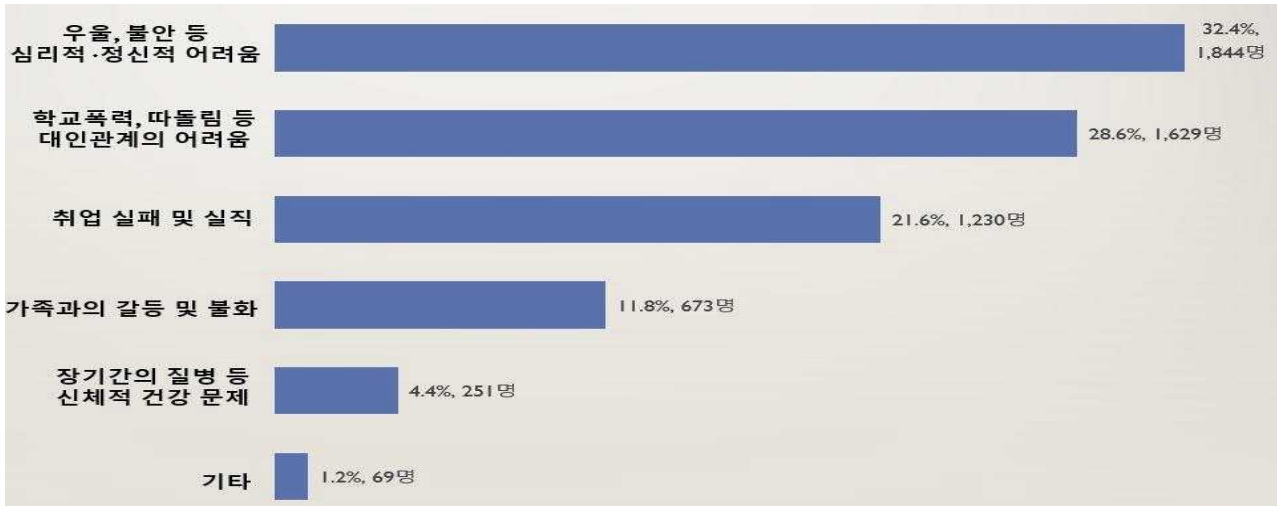
2)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원인에 대한 생각

-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, 가장 많은 응답자(57%, 1,834명)가 '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 부족 문제, 가정 환경 및 양육 문제, 취업난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'라고 답변
- 단일 원인으로는 '취업난, 무한경쟁 등 사회 구조적 문제'(18.8%, 606명)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



3) 은둔 시작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에 대한 생각(2개까지 선택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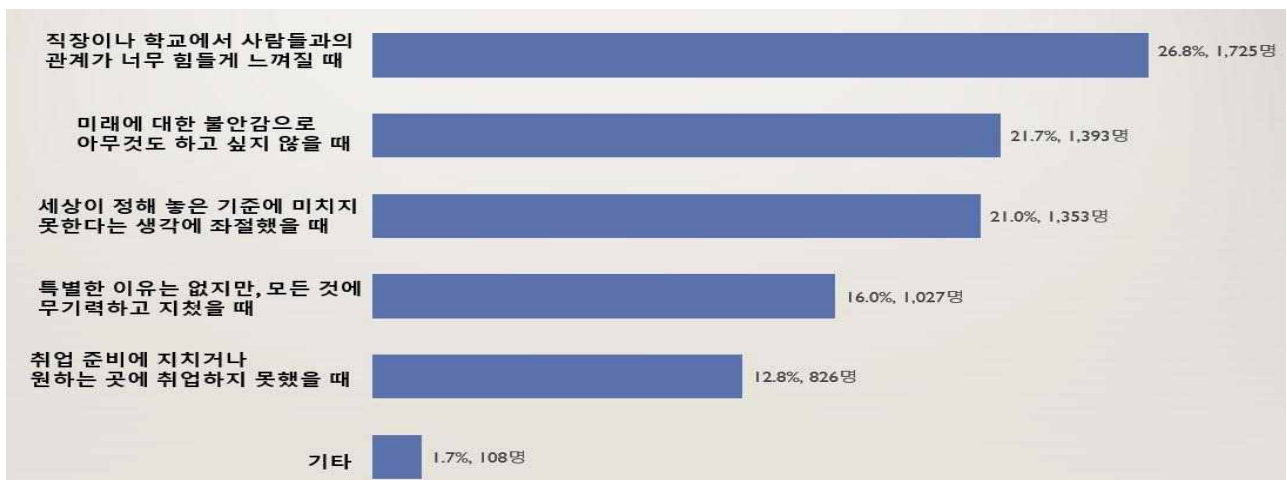
- ‘한 사람이 사회와의 문을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라는 질문에,
 - 가장 많은 응답자(32.4%, 1,844명)가 ‘우울, 불안 등 심리적·정신적 어려움’이라고 답변



※ 총 참여수: 합계-5,696명 / 일반국민-2,389명 / 국민패널-3,307명

4) 집 안에만 있고 싶어지는 순간에 대한 공감대(2개 선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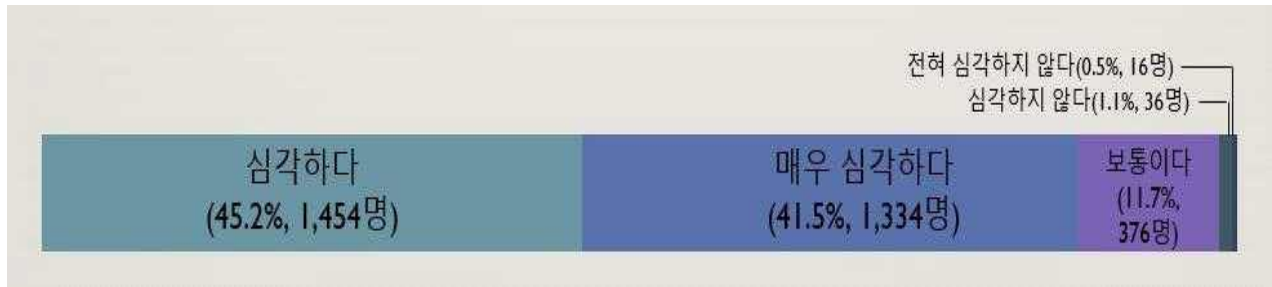
- ‘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’ 라는 답변이 26.8%(1,725명)로,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 -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가 ‘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’(21.7%, 1,393명)라고 답변



5) 은둔형 외톨이 문제의 심각도에 대한 인식

- 현재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‘심각하다’*고 생각하는 응답이 86.7%(2,788명)에 달함

* ‘매우 심각하다’(41.5%)와 ‘심각하다’(45.2%)의 합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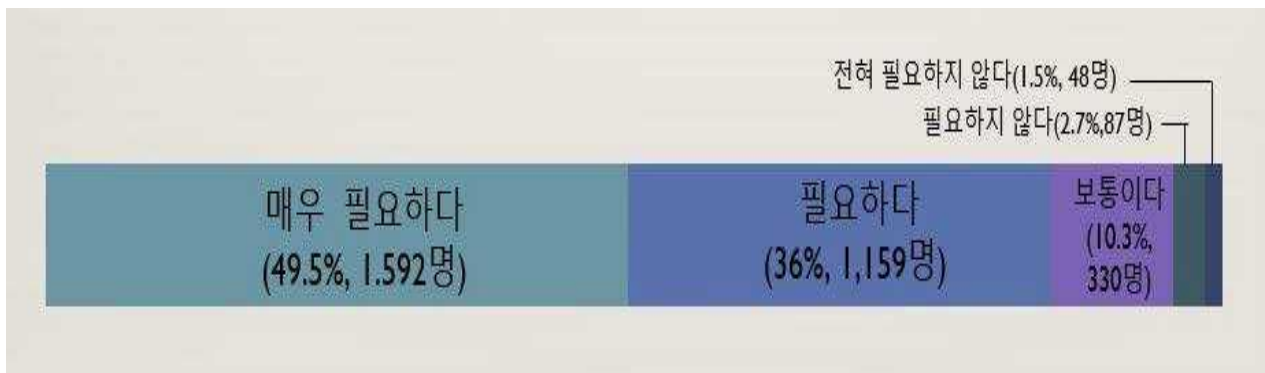


6) 정부가 은둔형 외톨이를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

-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할 때, 정부가 위기 징후를 먼저 파악하고 찾아가는 ‘선제적 발굴 시스템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,

- ‘필요하다’*는 응답이 85.5%(2,751명)로 대다수를 차지

* ‘매우 필요하다’(49.5%)와 ‘필요하다’(36%)의 합계



7)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을 포함해 전연령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생각

- 85.9%(2,764명)에 달하는 응답자가 ‘현재 청년에 한정되어 있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중장년층까지 확대’하는 것에 대해 찬성*

* ‘매우 찬성한다’(53.5%)와 ‘찬성한다’(32.4%)의 합계



8)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생각

- 응답자의 86.7%(2,789명)가 ‘고립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’*고 답변

* ‘매우 필요하다’(50.5%)와 ‘필요하다’(36.2%)의 합계

